

삼학도가 시민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20년에 걸친 삼학도 복원화(공원화) 과정은 한발 앞선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형 슬로시티의 대표적 모범사례입니다!

김종식 목포시장께 요청합니다

- 삼학도를 호텔사업자에 넘기기 위해 20년간 1,399억 원세를 투입한 것이 아닙니다.
- 삼학부두 민자호텔 추진과 민간사업자 선정을 중단해 주십시오.
- 삼학도를 팔아넘긴 시장이 아니라 삼학도 복원화를 완수한 시장이 되어 주십시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께 요청합니다

- 20년에 걸친 삼학도 복원화의 성과가 물거품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 국공유재산이 특정인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심의해 주십시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께 요청합니다

- 20년 전 해수부의 국비 지원 덕분에 삼학도 복원화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 항만의 기능 변화가 특정사업자의 이권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 제3,4차 항만기본계획 취지에 따라 삼학부두를 항만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주십시오.

국회에 호소합니다

- 삼학도를 살리기 위한 오랜 노력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국유재산이 어이없이 망실되지 않도록 해수부에 국회의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은 삼학도 '공원화'를 지시했습니다.
-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삼학도 '복원화'를 약속했습니다.
- 이 긴 여정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삼학도를 지켜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삼학도**를 검색하세요

문의 | 061-243-3169 후원 | 국민은행 782301-01-625402

삼학도를 팔아넘기려는 목포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막아주십시오!

- 민족의 애환과 애뜻한 전설을 품은 삼학도는 목포의 정신, 다도해의 시발점입니다.
- 삼학도를 살리기 위해 20년간 혈세 1,399억 원을 투입해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 삼학도는 어린이, 어른 누구나 같이 즐길 수 있는 항만친수공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 삼학도 국유지 노른자위 땅이 호텔사업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해양수산부는 항만기본계획을 통해 기능이 변화된 항만 등을 명품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삼학부두도 북항 노을공원과 같이 시비 부담없이 해양수산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친환경 생태공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치밀한 전략과 논리로 국립삼학도진흥원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 역량을 발휘해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을 완성한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학도지키키국민운동본부

문의 | 061-243-3169 후원 | 국민은행 782301-01-625402

목포시의 삼학도 민자호텔은 명분이 없습니다

삼학도 민자호텔은 특혜 소지가 다분합니다

1 노른자위 땅 구)해경부두자리를 호텔사업자에 넘기기 위해 20여 년간 1,399억 원을 들여 복원화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 2000년부터 20여 년간 국비와 지방비 1,399억 원을 들여 제분공장, 저유소 등을 보상해 이전시키고, 섬 형태의 수로를 만드는 등 복원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삼학도의 98%가 국공유지로 공원조성의 결실 단계에 와 있고, 의지를 모아 삼학도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항만친수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목포시에 부족하다는 대형 컨벤션과 대형 숙박시설이 건축 중이거나 속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 2021년 9월 현재, 국제회의가 가능한 700석 이상의 컨벤션과 5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대형호텔이 목포역 인근에서 건축 중에 있고, 500실 이상의 또 다른 호텔 또한 인허가 과정에 있습니다.
- 목포시가 삼학도 호텔 유치의 이유로 내세운 대형 컨벤션과 숙박시설은 이미 건축 중이거나 속속 준비되고 있어 명분이 떨어지고, 5성급 호텔 또한 삼학도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설사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편법과 거짓말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요

- “전남도의 지침을 받았다”, “해수부가 전부 다 승인을 했다”면서 시의회에서 거짓말 답변하고, 민자유치와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사업자 선정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석탄부두가 폐쇄된 자리에 호텔을 짓겠다 하고서는 이를 뒤집어 삼학도 노른자위인 유람선 주차장과 구)해경부두 자리를 호텔대상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초기에 자기자본 한푼 없이도 호텔사업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목포시의 삼학도 유원지 사업자 공모지침 제11조 제8항에 의하면 “자기자본금에 대해 투자확약서 및 조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하여 호텔사업자가 자기자본금 0원이더라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고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게다가 도시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 전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이권이 형성되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이 사라지고 사업자의 입맛에 맞게 도시계획이 변질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2 호텔 건립 5년 후 아무런 제재없이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목포시의 공모지침 제4조 제7항 2호에 의하면 호텔 건립 5년 후 아무런 제재없이 호텔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호텔사업자에게 개발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특혜성 조항이며, 자칫 먹튀호텔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삼학도가 사실상 호텔의 사유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 삼학도 전체 면적은 약 17만평, 경관이 가장 좋은 바닷가 호텔예정부지는 약 3만2천평으로 삼학도 면적의 19%에 해당, 결과적으로 기존에 조성된 삼학도 공원부지는 호텔의 진입로 경관을 구성하는 호텔의 정원처럼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 게다가 목포시는 용역을 통해 기존에 공원으로 조성된 삼학도 일대에 호텔과 별도로 100억 원을 투입해 사계절 꽃피는 테마경관을 조성하겠다는 특혜성 계획을 도출하는 등 삼학도가 사실상 호텔의 사유지처럼 될 것입니다.

